

현대 중국어 어순과 의식류(意識流)의 수렴 및 발산

장호득*

목 차

1. 서론
2. 본론
 - 1) 사건 구조 속의 시간순서원칙과 의식류 원칙
 - 2) 부사어 위치의 시간순서원칙과 의식류 원칙
 - 3) 시간범위원칙과 시간 표현의 의식류 원칙
3. 결론

국문초록

언어는 객관세계를 두뇌에서 재가공한 후 ‘근사(近似)’한 방법과 ‘소리’라는 수단으로 반영하여 도출한 ‘두뇌의 우주세계(宇宙世界)’, 즉 ‘의식류(意識流)’이다.

본고는 1985년에 James H-Y. Tai가 제시한 ‘시간순서원칙(PTS, Principle of Temporal sequence)’에 적용되기 어려운 예를 분석하여 다른 각도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여 그의 이론을 더 일반화하고자 하였다. 그 관점은 바로 ‘중국어의 어순은 중국어 모어 사용자의 의식류(the stream of consciousness)의 수렴(收斂, convergence)과 발산(發散, divergence)’에 의해 생성되고 도출된다는 것이다.

이 ‘의식류의 원칙’은 지렛대의 원리(the principle of the lever and fulcrum, 杠杆原理)로 작동되며, 술어 또는 휴지(pause) 등 표지를 지렛목(fulcrum, 支点)으로 삼아 수렴과 발산의 형식으로 도출된다고 구명(究明)하였다. 그리고 이 원리는 또 함수 관계로도 설명할 수 있다. 어순, 논리 등을 표현하는 모듈 내에서의 의식류 함수식은

* 단국대학교 외국어대학 아시아중동학부 중국학전공 교수

$f(x)=y$ 인데, 그 함수(函數, function)는 정의역(定義域, domain)에서 치역(值域, range)으로 사상(寫像, mapping)되고 있음을 구명하였다.

키워드: 현대 중국어, 어순, 의식류, 수렴, 발산, 시간순서원칙

1. 서론

본고는 1985년에 James H-Y. Tai가 제시한 중국어 어순의 ‘시간순서원칙(PTS, Principle of Temporal sequence)’을 더 일반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그의 논문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는 “두 통사 단위의 상대적인 어순은 그들이 표현하는 개념 세계 속 상태의 시간 순서에 의해 결정된다.”¹⁾라고 하면서 두 절 사이의 순서, 두 개의 동사가 연이어 올 때의 순서, 부사어, 시간 범위 등등을 예시로 분석하면서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의 이런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현재까지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에 인용하고 있으며 중국어 교육문법 분야에도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본고는 이런 주장의 기본적인 관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시간순서원칙’에 적용되기 어려운 예를 제시하여 분석하면서 다른 각도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²⁾ 그 관점은 바로 ‘중국어의 어순은 중국어 모어 화자의 의식류

1) “The principle of temporal sequence (henceforth PTS) can be stated as: the relative word order between two syntactic units is determined by the temporal order of the states which they represent in the conceptual world.”(James H-Y. Tai, “Temporal sequence and Chinese word order”[John Haiman, 『Iconicity in Syntax』(Typological Studies in Language 6),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85], p.50.) 중국어로 번역된 논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时间顺序原则(The principle of temporal sequence, 以下称为PTS)可以表述为: 两个句法单位的相对次序决定于它们所表示的概念领域里的状态的时间顺序。”(戴浩一著, 黄河译, 「时间顺序和汉语的语序」, 『国外语言学』, 1988年第1期, p.10.)

2) 양덕봉도 ‘시간순서원칙이’ 중국어 어순의 중요한 원칙이긴 하지만 유일한 원칙은 아니

(意識流, the stream of consciousness)³⁾의 수렴(收斂, convergence)과 발산(發散, divergence)'에 의해 생성되고(generate) 도출된다(derive)는 것이다.

장호득은 언어 표현에 대해 객관세계를 재가공한 두뇌의 우주세계를 근사(近似)⁴⁾한 방법으로 반영하여 도출한 것이라고 하였다.⁵⁾ 이런 '두뇌의 우주세계'를 본고에서는 잠시 '의식류(意識流)'라고 부르겠다. 이 '의식류'는 지렛대의 원리(the principle of the lever and fulcrum, 杠桿原理)로 반영되며, 중국어의 주요 성분인 술어 또는 휴지(pause) 등 표지를 지렛목(fulcrum, 支點)으로 삼아 그 전반부는 수렴의 형식으로, 후반부는 발산의 형식으로 도출된다는 가설을 세우고 '시간순서원칙'에서 벗어나는 예를 제시하여 이 가설을 증명해 나가도록 하겠다.⁶⁾ 그리고 술어라는 지렛목을 찾을 수 없는 논리 관계, 시공

라고 하였다. “‘时间顺序原则’确实是汉语语序的一个非常重要的原则。不过, ‘时间顺序原则’也并不是唯一的原则……。”(杨德峰, 「“时间顺序原则”与“动词+复合趋向动词”带宾语形成的句式」, 2005年第3期, 『世界汉语教学』, p.63).

- 3) '의식의 흐름'이라고도 한다. 이 '의식류'라는 용어는 James, William(1890)에서 힌트를 얻었다. “Consciousness, then, does not appear to itself chopped up in bits. Such words as ‘chain’ or ‘train’ do not describe it fitly as it presents itself in the first instance. It is nothing jointed; it flows. A ‘river’ or a ‘stream’ are the metaphors by which it is most naturally described. In talking of it hereafter let us call it the stream of thought, of consciousness, or of subjective life.”(James, William,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New York, NY: Henry Holt, 1890., p.239.)
- 4) 여기서의 “근사(近似)”란 ‘近接性’의 ‘近’과 ‘類似性’의 ‘似’를 합친 것으로, 인지언어학에서 말하는 유사성(類似性, similarity)과 근접성(近接性 또는 인접성, adjacency)에 따른 은유(隱喻, metaphor)와 환유(換喻, metonymy)의 방식을 가리킨다.
- 5) “우리가 하는 말은 현실세계(nonverbal world)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두뇌세계를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주석에서 “두뇌세계는 현실세계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반영하여 새롭게 조각된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세계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하는 공통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언중의 무리에 따라 혹은 개인에 따라 다른 부분도 있다.”라고 하였다.(장호득, 「현대중국어 시간 개념의 범주화와 통사적 도출 연구」, 『중국문학연구』, 제50집, 한국중문학회, 2013.02., pp.169-170.) 위 본문의 문장은 이 논문을 인용하면서 약간 수정한 것이다.
- 6) 이선희는 어순과 관련하여 주관량(主觀量)을 기준으로 ‘어순과凸显’이라는 인지언어학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고와 부분적으로 상통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겠다.(이선희, 「현대중국어의 주관량(主觀量) 대소전도현상과 어순변화」, 『중국언어연구』, 제17집, 한국중국어언어학회, 2003.12., p.246.) 다만, 본고는 인지언어학의 ‘현재성의 원리(The

관계, 유속(類屬) 관계 등등 각각의 모듈 내에서의 의식류 함수식은 $f(x)=y$ 로, 그 함수(函數, function) 또는 사상(寫像, mapping) 관계는 정의역(定義域)에서 치역(值域)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구명(究明)하도록 하겠다. 아래의 본문 분석과 논지 전개 과정은 기본적으로 James H-Y. Tai 논문의 장절 순서에 본고의 관점을 더한 방식으로 진행하겠다.

2. 본론

1) 사건 구조 속의 시간순서원칙과 의식류 원칙

James H-Y. Tai는 두 개의 절이 ‘再’, ‘就’, ‘才’ 등과 같은 시간 접속사로 연결되면 첫째 절의 사건 발생 시간이 늘 둘째 절의 앞에 온다고 하면서 영어와 대비시켜 아래와 같은 예를 제시하고 있다.⁷⁾

(1) 我吃过饭, 你再打电话给我。⁸⁾ (밥을 먹은 후 나에게 전화를 다오.)

S₁ S₂
Call me after I have finished the dinner.
S₂ S₁

말은 사태(eventuality)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사태는 사건(event)과 상

e principle of Saliency)보다는 ‘선형구조(linear structure)’라는 언어의 본질인 1차원성에 주안점을 두고 말소리의 흐름에 따른 수렴과 발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7) James H-Y. Tai, “Temporal sequence and Chinese word order”[John Haiman, 『Iconicity in Syntax』(Typological Studies in Language 6),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85], p.50. 戴浩一著, 黄河译, 「时间顺序和汉语的语序」, 『国外语言学』, 1988年第1期, p.10.

8) ‘()’는 James H-Y. Tai(1985)에서 따온 예문을 나타내는 것으로 괄호 안의 숫자는 원문에 따른 것이다. 이하 내용에서 ()로 표시한 것은 모두 이것을 나타내며 따로 주석을 달지 않는다.

태(state)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사건과 상태는 1개 또는 2개 이상을 조합하여 표현할 수 있다. 2개 이상을 조합하여 표현하는 경우 당연히 순서가 있기 마련인데 그 순서는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구현되는 현상의 순서에 따른다. James H-Y. Tai가 제시한 위의 예시도 이런 경우에 해당하며 당연히 ‘시간순서 원칙’에 부합한다. 또 이 원칙에 따라 표현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지극히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그런데 이런 객관현상을 그대로 두뇌에서 반영하여 구현하는 사건의 구성과 언어 표현이 대부분이지만 두 개 이상의 절로 구성된 문장이 아래처럼 논리적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다.

- (01) 厂长的回答是, “没有错, **因为**质量好, **所以**一直在用。”⁹⁾(공장장의 대답은 “맞아, 품질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여태껏 쓰고 있지.”이었다.)
- (02) 心理语言学家认为, **人之所以**能够理解语言是**因为**信息接收者和信息输出者的心目中有共同的语法规则或“约定”。(심리언어학자는 사람이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소이는 정보 접수자와 발송자의 마음 속에 같은 어법 규칙 또는 ‘약정(약속)’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03) 一切众生都是佛, **因为**都有佛性。(일체의 중생이 모두 부처인 것은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01)-(03)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다. 원인과 결과가 두 개의 사건의 흐름으로 구성되는 경우 객관적인 현상에 따른 사건의 순서는 당연히 원인과 결과의 순서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원인이 있어야 그 뒤에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03)은 ‘결과-원인’의 순서로 표현되고 있으며, (02)도 ‘결과-원인’이라는 논리적인 순서로 표현되고 있다. 그

9) (01)-(03)은 北京大学CCL语料库에서 검색하여 찾은 것이다. 이후의 예문 가운데 출처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것은 이곳에서 가져온 것임을 밝힌다. http://ccl.pku.edu.cn:8080/ccl_corpus/(北京大学CCL语料库) [2023.04.15.] 이 예문은 당연히 화용론 등의 관점에서 달리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의 논의는 ‘시간순서원칙’의 원리에 반한다는 관점에서 논거의 초점을 맞춘 것이다.

리므로 (01)-(03) 가운데는 ‘시간순서원칙’에 따라 두 개의 사건이 발생하는 순서대로 표현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예를 통해 볼 때 복문 속의 두 절이 ‘시간순서원칙’에 적용되는 경우도 많겠지만 이처럼 어떤 논리적 순서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간순서원칙’에 이런 ‘논리적 순서’를 더하여 현대 중국어의 어순 관계를 본고는 ‘의식류(의식의 흐름)에 따른 순서 원칙’으로 보고자 한다. 함수식의 관점에서 보자면 중국어 모어 화자는 그 논리적 순서에서 정의역(定義域)¹⁰⁾을 앞세우고 치역(值域)¹¹⁾을 뒤에 두는 함수식 $f(x)=y$ 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객관세계를 재가공한 화자의 의식류에서 ‘결과’를 정의역에 두고 ‘원인’을 치역으로 사상한다면 그 언어 표현을 (02)와 (03)으로 도출할 것이고, 반대로 일반적인 순서대로 ‘원인’을 정의역에 두고 ‘결과’를 치역으로 사상한다면 (1)과 (01)을 도출할 것이다.

James H-Y. Tai(1985:52, 1988:11)는 또 두 개의 동사구로 연속되는 행위나 동작을 표시할 때도 그들의 순서는 개념 영역 속의 시간 순서에 따른다고 하면서 아래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¹²⁾

(11) a. 我们开会解决问题。 b. *我们解决问题开会。(우리는 회의를 열어 문제를 해결한다.)

(04) 矿业主们为了解决开矿的一些问题, 特意请来了精通采矿术的外国人。¹³⁾(광업주들은 광산 개발의 몇몇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광

10) 정의역(定義域) 「명사」 「1」 『수학』 두 변수 x, y 사이에 y 가 x 의 함수로 나타내어질 때에, x 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정의구역. 「2」 『수학』 f 가 집합 A 에서 B 로의 사상(寫像)일 때에, A 를 함수 f 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정의구역(定義區域).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2023.04.15.]

11) 치역(值域) 「명사」 『수학』 어떤 함수에서, 독립 변수가 정의역 내의 모든 값을 취할 때에, 함수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값의 집합.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2023.04.15.]

12) James H-Y. Tai, “Temporal sequence and Chinese word order”[John Haiman, 『Iconicity in Syntax』(Typological Studies in Language 6),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85], p.52. 戴浩一著, 黄河译, 「时间顺序和汉语的语序」, 『国外语言学』, 1988年第1期, p.11.

13) “…解决问题…”, http://ccl.pku.edu.cn:8080/ccl_corpus/(北京大学CCL语料库)[2023.04.

기술에 정통한 외국인을 특별히 모셔 왔다.)

James H-Y. Tai는 (11)을 예로 들면서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 가운데 동작은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 앞에 발생하므로 그 어순도 동작을 표시하는 어구가 앞에 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주장처럼 연속되는 동작이나 행위는 객관적인 현상의 발생 순서가 있으므로 당연히 그 발생하는 순서에 따라 어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나 언어 표현은 이런 구체적인 동작이나 행위의 연속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며, 객관세계를 뇌리에서 재가공한 두뇌세계, 즉 의식류의 표현이므로 그 범위를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04)는 (11)과 달리 ‘목적’을 가진 표현이 동작을 표시하는 어구 앞에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언어 표현은 사건과 상태를 포괄하는 사태에 대한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두 개 이상의 사건으로 연결되는 사태에 대한 표현에도 적용되는 대원칙하에 각각의 모듈에 적용되는 소원칙들이 있어야 한다. 또 이런 소원칙들은 대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고는 (04)까지 포함하는 대원칙을 ‘의식류 원칙’으로 보는 것이다. 이 원칙은 (11)에도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시간순서원칙’을 포함하는 상위 범주의 원칙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James H-Y. Tai는 아래와 같은 예를 들면서 ‘시간순서원칙’의 예외적인 현상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즉, 아래의 예가 두 가지로 모두 표현이 가능한 것은 두 개의 동사구가 시간 순서에 있어서 다른 해석을 가지므로 두 개의 어순이 나온다는 것이다.¹⁴⁾

(8) 张三到图书馆拿书。(장싼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가져왔다.)

15.]

14) “Furthermore, two verbal phrases can have either order with different interpretations in temporal sequence.”(James H-Y. Tai, “Temporal sequence and Chinese word order” [John Haiman, 『Iconicity in Syntax』(Typological Studies in Language 6),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85], p.51.) “此外, 两个谓词短语可能因为时间顺序上有不同解释而出现两种次序。”(戴浩一著, 黄河译, 「时间顺序和汉语的语序」, 『国外语言学』, 1988年第1期, p.11.)

VP₁ VP₂

John went to the library to get the book.

(9) 张三拿书到图书馆。(장삼은 책을 들고 도서관에 갔다.)

VP₁ VP₂

John took the book to the library.

(11), (8), (9)를 사태의 관점에서 보면 두 개의 사건, 즉 각각 ‘회의를 열다’와 ‘문제를 해결하다’, ‘도서관에 이르다’와 ‘책을 가지다’, ‘책을 가지다’와 ‘도서관에 이르다’라는 2개의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James H-Y. Tai는 (11)에서 두 사건을 ‘동작’과 ‘목적’의 관계로 보면서 ‘목적’과 ‘동작’의 관계로 구성된 “‘解决问题开会’”를 비문으로 보고 있는 반면 “‘到图书馆拿书’”와 “‘拿书到图书馆’”은 시간 순서에 있어서 다른 해석이 가능하므로 둘 다 합법적인 문장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보면 유사한 구조인데 (11)의 ‘解决’은 도달하는 목적으로 보면서 (8)과 (9)는 왜 그렇게 보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상세하게 분석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1973년 李纳 & Thompson의 “a. 张三天天会客写信. b. 张三天天写信会客.” 예문을 인용하면서 이런 두 경우가 가능한 예문은 시간 순서의 차이가 의미상의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시간 순서와 관련되지 않으면 두 어순은 모두 합법적이며 두 연결 형식도 의미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¹⁵⁾ 객관적으로 볼 때 두 사건의 미세한 간극 또는 동시 발생으로 인해 ‘시간순서원칙’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객관현상으로 재가공한 근사한 두뇌의 우주세계’인 ‘의식류 원칙’으로 적용하면 화자 두뇌 속의 의식의

15) “Li and Thompson(1973) have correctly observed that sentences like (10a) have a n ‘alternating’ reading in that the actor goes back and forth between two different kinds of activities. (10) a. Zhāngsān tiāntiān huì-kè xiě-xìn. Every day John both receives guests and writes letters. b. Zhāngsān tiāntiān xiě-xìn huì-kè.” [James H-Y. Tai, “Temporal sequence and Chinese word order”(John Haiman, 『Iconicity in Syntax』,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85.), p.5 1.] “李纳和Thompson(1973)曾正确观察了类似(10a)这样的句子, 这类句子由于施事反复做两类事情而有‘两可’的说法: (10) a. 张三天天会客写信. b. 张三天天写信会客.” (戴浩一著, 黄河译, 「时间顺序和汉语的语序」, 『国外语言学』, 1988年第1期, p.11.)

흐름에 따라 어순이 정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⁶⁾ 바꾸어 말하면 이런 부분도 사건의 순서에 대한 화자의 의식류에 따라 그 어순도 정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앞에서 제시한 지렛목에 해당하는 함수에 따라 정의역과 치역의 순서로 사상된다고 할 수 있다.

- (05) A: 他们都去哪儿了? B: (a) 他们都去吃饭了。 (b) 他们都吃饭去了。(A: 그들 모두 어디 갔지? B: (a) 그들 모두 가서 먹어. (b) 그들 모두 밥 먹으러 갔어.)
- (06) A: 你哪儿去了? B: (a) 我刚吃饭回来。 (b) 我刚去厕所回来。(A: 너 어디 갔었니? B: (a) 나 방금 밥 먹고 왔어. (b) 나 방금 화장실 갔다 왔어.)

(05)와 (06)은 각각 ‘去’와 ‘吃’, ‘吃’와 ‘去’, ‘吃’와 ‘回来’, ‘去’와 ‘回来’라는 두 개의 동사의 연이어 나오는 표현이다. 즉, 두 개의 사건으로 구성된 사태를 표현하고 있는 문장으로, 문형의 형식이나 구조로 볼 때 (8), (9), (11)과 유사하다. 전체적인 사태의 입장에서 볼 때 (05)의 (B-(a))는 ‘가다’라는 동작과 ‘먹다’라는 동작이 순차적으로 발생하여 ‘시간순서원칙’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B-(b))의 표현에서는 ‘먹다’라는 동작이나 행위가 먼저 발생하고 ‘가다’라는 동작이나 행위가 이어서 나타나는 ‘먹고 가다’의 의미가 아니므로 ‘시간순서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그런데 (06)의 (B-(a))는 ‘먹고 돌아오다’의 의미로 동작이나 행위의 선후 순서로 표현되고 있으므로 ‘시간순서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05)의 (B-(b))와 (06)의 (B-(a))는 ‘시간순서원칙’에서 볼 때 서로 모순되는 언어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앞의 서론에서 현대 중국어의 어순은 ‘의식류’를 지렛목을 중심으로 수렴되고 발산되어 지렛대 원리로 구현되고 있다고 가설을 세웠다. 이를 위의 예에 적용시켜 보면 하나의 문장의 중심은 술어이므로 술어를 지렛목으로 삼아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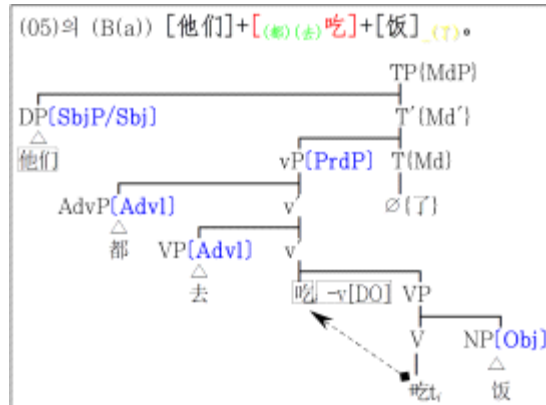
16) 刘晓丽&于善志는 “‘시간순서원칙’은 결국 중국어의 공간성이 결정한다.”라고 하였다. (刘晓丽&于善志, 「论汉语的空间性——从戴浩一「时间顺序和汉语的语序」谈起」, 2011年第4期, 『语言理论研究』, p.16.) 그러나 본고에서는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1차원성을 가지므로 2차원성인 공간성은 언어의 본질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은 수렴되는 과정이고 이후는 발산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05)의 (B-(a))의 ‘去吃饭’은 술어가 ‘吃’이므로 이를 지렛목으로 삼아 ‘去’로 수렴된 이후 ‘饭’으로 발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먹다’라는 사건을 표현함에 있어서 그 수렴되는 조건은 ‘가다{가서}’이며 그 발산되는 결과는 ‘밥’인 것이다. 반면 (05)의 (B-(b))의 ‘吃饭去’는 술어가 ‘去’이므로 이를 지렛목으로 삼아 ‘吃饭’으로 수렴되어 ‘去’로 발산된다고 할 수 있다.¹⁷⁾ 즉, ‘가다’라는 사건을 표현함에 있어서 그 수렴되는 조건은 ‘밥을 먹다’이며 그 발산되는 결과는 ‘가다’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표현의 두뇌의 의식의 흐름에 있어서 화자의 뇌리에서는 ‘吃饭’이라는 목적이 되는 조건을 먼저 떠올리고 그 다음으로 ‘去’라는 동작이나 행위로 그 의미를 발산하는 것이다. 이를 함수 관계로 풀이하면 (05)의 (B-(a))는 ‘去’라는 정의역이 ‘吃饭’이라는 치역으로 사상되고, (05)의 (B-(b))의 ‘吃饭去’는 ‘吃饭’이라는 정의역이 ‘去’라는 치역으로 사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05) B: (b) 他们都吃饭去了。”의 ‘吃饭’과 “(06) B: (a) 我刚吃饭回来。”의 ‘吃饭’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다. 전자의 ‘吃饭’은 실제로 동작이나 행위가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후자의 ‘吃饭’은 구체적인 동작이 행위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James H-Y. Tai(1985)는 이런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지 않다. “吃饭去”의 구조를 ‘목적’과 ‘결과’로 본다면 “*解决问题开会”도 같은 ‘목적’과 ‘결과’의 구조이므로 합법적인 문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분석하고 있지 않으므로 서로 모순이 되고 있다.

(05)를 수형도로 그리면 아래와 같다.

17) ‘술어’는 지렛목 역할을 하면서 수렴과 발산의 경계에 있으므로 화자의 표현 의도에 따라 수렴이나 발산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단지 지렛목 역할만 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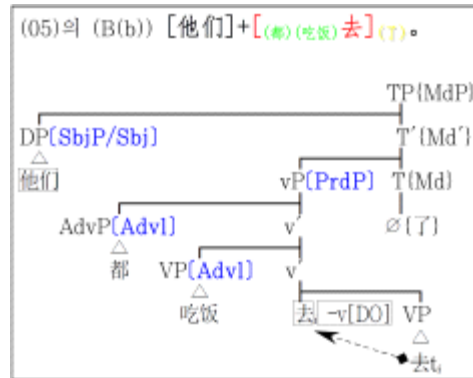


위 수형도에서 ‘吃’는 동사로서 술어이며 ‘去’는 구성소¹⁸⁾로는 동사이지만 그 역할체¹⁹⁾는 ‘都’와 함께 부사어이고 ‘了’는 양태(modality)를 표시하면서 역할체는 문장의 종류를 구분해 주는 신어(信語)²⁰⁾라고 할 수 있다.

18) 구성소는 통사구조의 모듈 단위를 구성하는 요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낱말, 구, 절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19) 역할체는 어순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통사 단위를 말한다. 기존의 용어 성분과 달리 貌語(상 역할을 하는 것), 信語(문장의 종류를 구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주요 역할체(주어, 술어, 목적어), 부속 역할체(부사어, 보어, 관형어) 등을 아우르는 용어이다. 이는 1956년에 George A. Miller가 제시한 ‘마법의 수, 7±2’(The Magical Number Seven, Plus or Minus Two)와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George A. Miller, “The Magical Number Seven, Plus or Minus Two: Some Limits on Our Capacity for Processing Information”, 『The Psychological Review』, vol. 63, 1956., p.81-97.)

20) ‘신어(信語)’는 본고에서 임시로 사용하는 역할체의 하나로서 ‘啊’, ‘吧’, ‘吗’, ‘的’, ‘呢’ 등처럼 문장의 종류를 구분해 주는 것을 가리킨다.



위 수형도에서 ‘去’는 동사로서 술어이며 ‘吃饭’은 구성소로는 ‘동사+ 명사’로서 동사구이지만 그 역할체는 ‘都’와 함께 부사어이고 ‘了’는 양태(modality)를 표시하면서 그 역할체는 문장의 종류를 구분해 주는 신어(信語)라고 할 수 있다.

객관세계나 객관현상을 그대로 묘사하여 언어로 표현하는 경우는 ‘시간순서원칙’에 적용될 수 있지만, 언어 표현은 이런 객관세계를 그대로 반영하기도 하지만 화자에 너리에서 재가공한 의식류를 근사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James H-Y. Tai(1985)에서는 ‘概念領域里的状态’나 ‘事件发生的时间’이 혼재되어 있어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히 정의하고 명세할 필요가 있으며, ‘개념’, ‘관념’ 등에 대해서도 그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 부사어 위치의 시간순서원칙과 의식류 원칙

James H-Y. Tai는 또 부사어의 위치를 통해 ‘시간순서원칙’을 증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²¹⁾

21) James H-Y. Tai, “Temporal sequence and Chinese word order”[John Haiman, 『Iconicity in Syntax』(Typological Studies in Language 6),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85], p.30. 戴浩一著, 黄河译, 「时间顺序和汉语的语序」, 『国外语言学』, 1988年第1期, p.12.

(16) a. 他**从**中国**来**。He came from China. b. *他**来从**中国。(그는 중국에서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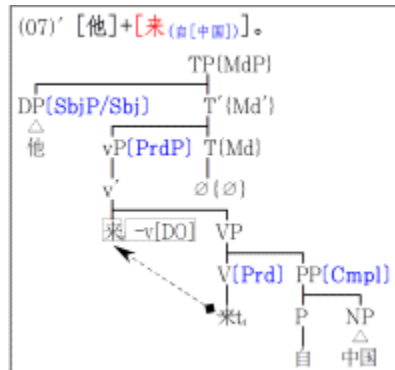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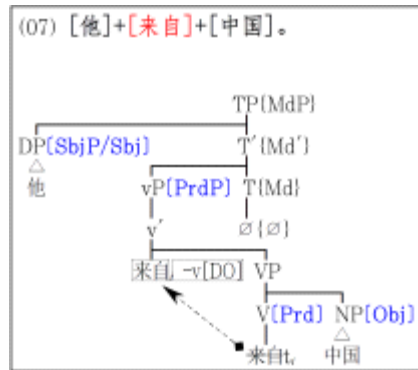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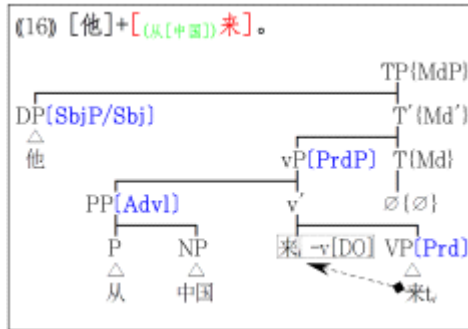
(07) 他**来自**中国。(그는 중국엘{중국에를} 왔다.)

그는 (16)의 ‘从’자 전치사구가 동사 앞에 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간순서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从’자 전치사구는 시발점을 나타내므로 동작 이전의 상태라고 할 수 있으므로 ‘从’이 동사에서 나온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주석에서는 “他来自中国。”의 ‘自’는 문언문 낱말이므로 합법적인 문장이라고 하면서 현대 서면어에서 사용하는 문언 격식을 ‘시간순서원칙’에서 벗어나는 예로 볼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²²⁾ 그런데 『现代汉语词典』(第7版)에 따르면 ‘来自’가 이미 동사로서 올림말로 등장하고 있다.²³⁾

(16)의 ‘来’는 동사로서 문장 전체의 술어이다. 구성소(element)의 관점에서 보면 ‘从中国’는 ‘개사+ 명사’의 구조로 개사구이지만, 역할체의 관점에서 보면 부사어로 술어 ‘来’를 수식하고 있다. 이를 의식류의 관점에서 보면 지렛 목인 ‘来’를 기준으로 ‘他’와 ‘从中国’로 전제되고 수렴되면서 ‘来’로 발산되고 있다. 함수 관계로 보면 ‘他’와 ‘从中国’라는 정의역이 ‘来’라는 치역으로 사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수형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22) James H-Y. Tai, “Temporal sequence and Chinese word order”[John Haiman, 『Iconicity in Syntax』(Typological Studies in Language 6),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85], p.30. 戴浩一著, 黄河译, 「时间顺序和汉语的语序」, 『国外语言学』, 1988年第1期, p.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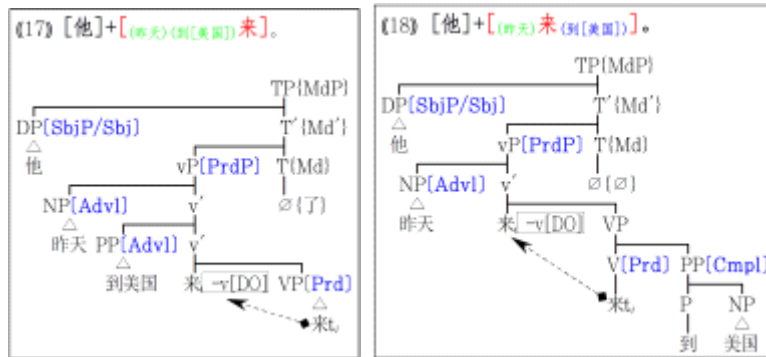
23) “【来自】 [láizi] 从某处或某方面来: 来自五湖四海 | 他的自信来自雄厚的实力。”(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编, 『现代汉语词典』(第7版), 北京: 商务印书馆, 2016., p. 773.) ‘来自’는 2005년 6월에 출판된 제5판에는 올림말로 실려 있지 않지만 2012년 6월에 출판된 제6판부터 올림말로 실려 있다.



(07)의 ‘来自’는 동사로서 술어이며, ‘中国’는 술어 ‘来自’의 목적어(처소 목적어)이다. 반면 (07)'은 ‘来’가 동사로서 술어이며, (自[中国])는 구성소로 보면 ‘개사+명사’ 구조이며, 역할체로 보면 술어 ‘来’ 뒤에서 보어(처소 보어) 또는 후치 부사어 기능을 하고 있다. 말의 1차 부호는 시각부호인 글자가 아니라 청각부호인 소리이다. 이런 소리는 말하는 순간 공기 속에서 사라지므로 듣는 사람은 그때그때 기능 단위별[functional module; 功能块]로 구분하여 의미를 바로바로 파악하여 이해한다. 이런 관점에서 끊어 읽기를 한다면 고대 중국어는 ‘[他]+[来]+[自中国]。’가 될 것이고, 현대 중국어는 ‘[他]+[来自]+[中国]。’가 될 것이다.²⁴⁾

24) ‘自’가 ‘来’ 뒤에 와서 하나의 동사로 형성되는 과정, 즉 ‘自’가 개사성 어근(vp)으로 투

- (17) 他昨天到美国来。He left for the United States yesterday. (그는 어제 미국으로 왔다.)
 (18) 他昨天来到美国。He arrived in the United States yesterday.(그는 어제 미국에 도착했다.)
 (08) (a) 他想到中国去, 结果却来到了美国。 (b) *他想到中国, 结果却到美国来了。²⁵⁾(그는 중국에 가려고 했으나 결과는 오히려 미국에 왔다.)



(17)의 ‘来’는 동사로서 술어이며, ‘昨天’은 시간명사이고 ‘到美国’는 ‘개사+명사’ 구조 개사구를 만들어 모두 술어 ‘来’를 수식하는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의식류에 따른 지렛대의 원리로 보면 ‘来’라는 지렛목을 기준으로 그 의미와 기능 측면에서 ‘昨天’과 ‘到美国’에서 수렴되어 ‘来’로 발산되고 있다. 함수 관계로 보면 ‘昨天’과 ‘到美国’라는 정의역에서 ‘来’로 치역으로 사상되고

사되어 앞의 동사성 어근 ‘来’와 결합하여 하나의 동사성 어근구(√vP)와 동사(V)로 생성·도출되는 형태·통사적 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호득(2021: 185-186)을 참고하기 바란다. 고대 중국어 어순 관련 연구는 조은정, 「고대중국어 어순 연구 현황」, 『중국어학연구』, 제59집, 한국중문학회, 2015.05., pp.169-190에서 자세히 정리하고 있다.

25) 戴浩一는 2011년의 연구에서 ‘개사구’에 대한 시간순서원칙은 앞으로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时间顺序原则对汉语介词词组的语序值得我们将来作更进一步的探讨.”)[戴浩一, 「再论时间顺序原则」(崔希亮主编, 『認知語法與對外漢語教學論文集』,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11.), p.83.] 이 예시는 익명의 메모를 참고하여 수정한 것이다.

있는 구조이다. (18)의 ‘來’는 동사로서 술어이며, ‘昨天’은 시간명사로서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고, ‘到美国’는 구성소로 보면 ‘개사+명사’로 개사구이고 역할체로 보면 술어 ‘來’의 결과를 나타내는 보어 역할을 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昨天’에서 의미와 기능적으로 수렴된 후 ‘來’를 거쳐 ‘到美国’까지로 발산되고 있다. 함수 관계로 보면 ‘昨天’이라는 정의역에서 ‘來’와 ‘到美国’라는 치역으로 사상되고 있는 구조이다.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來’는 공역으로 볼 수 있으며 핵심이 되는 치역은 ‘到美国’라고 할 수 있다. (08)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는 ‘중국에 가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미국으로 갔다.’일 것이다. ‘의식류’의 수렴과 발산 또는 함수 관계의 정의역과 치역의 관계로 보자면 이런 의미를 표현하자면 뇌리에서 먼저 목적지를 떠올리면서 목적지로 향하여(이르러) 가는 상황을 상정하고 그 이후 실제로 이동하여 도착한 목적지로 연결할 것이다. 즉, 전체적으로 보면 전자가 수렴 또는 정의역이 되고 후자가 발산 또는 치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전자와 후자의 각각에 대해 다시 분석해보면 전자는 ‘목적지로 향하여(이르다)’가 수렴 또는 정의역이 될 것이고 ‘가다’가 발산 또는 치역이 될 것이며, 후자는 ‘목적지로 가다(가서)’가 수렴 또는 정의역이 될 것이고 ‘목적지에 도착하다(이르다)’가 발산 또는 치역이 될 것이다. 이런 ‘의식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은 (08-a)이고, (08-b)는 이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비문이 되는 것이다. (17)과 (18)을 ‘시간순서’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지만 사실은 ‘到’와 ‘來’ 또는 ‘來’와 ‘到’의 시간 순서라기보다는 뇌리의 ‘의식의 흐름’ 순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의식류’ 관점에서 보면 (17), (18), (08-a)는 합법적인 문장이고, (08-b)는 ‘의식류’의 원칙과 표현의 괴리에서 오는 차이로 인해 비문이 되는 것이다.

(24) a. 他往南看。

b. *他看往南。 그는 남쪽으로 (향하여) 본다.

(09) a. 这艘船早就掉头往南开了。 b. 他同我们大多数人一样, 赞成开往南方。(a. 이 배는 일찍이 머리를 돌려 남쪽으로 향해 갔다. b. 그는 우리들 대부분처럼 남쪽으로 향해 가는 것에 찬성했다.)

James H-Y. Tai는 ‘시간순서원칙’에 따라 (24-a)를 옳은 문장으로 보고 (2

4-b)는 비문으로 보았다.²⁶⁾ (24)의 비문 여부에 대해서는 본고의 ‘의식류 원칙’에 적용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런데 (09)의 경우에는 (24)처럼 개사구인 ‘往南(方)’ 구조와 동사로 구성된 구문인데 모두 합법적인 문장이다. 이것은 동사 ‘看’과 ‘开’ 및 ‘往’의 의미자질(semantic feature)과 그 결합 관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의식류 원칙’은 지렛대의 원리, 수렴과 발산, 정의역과 치역 등을 하위 범주로 두고 있으므로 이런 의미자질과 통사적 관계도 담보하고 있지만 ‘시간순서원칙’은 그렇지 못하다고 할 수 있겠다.

James H-Y. Tai는 또 (21)을 예로 들면서 방향을 나타내는 처소사와 운송 수단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도 ‘시간순서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면서 다른 의미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어순을 바꿀 수 없다고 하였다.²⁷⁾

(21) 他从旧金山坐长途公共汽车经过芝加哥到纽约。

1 2 3 4
He came to New York from San Francisco through Chicago by
greyhound bus.

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시카고를 경유하여 뉴욕에 도착했다.

4 1 3 2
(10) 他从旧金山坐长途公共汽车到纽约经过了芝加哥。²⁸⁾

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뉴욕에 가면서 시카고를 경유했다.

26) James H-Y. Tai, “Temporal sequence and Chinese word order” [John Haiman, 『Iconicity in Syntax』 (Typological Studies in Language 6),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85], p.55. 戴浩一著, 黄河译, 「时间顺序和汉语的语序」, 『国外语言学』, 1988年第1期, p.13.

27) James H-Y. Tai, “Temporal sequence and Chinese word order” [John Haiman, 『Iconicity in Syntax』 (Typological Studies in Language 6),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85], p.54. 戴浩一著, 黄河译, 「时间顺序和汉语的语序」, 『国外语言学』, 1988年第1期, p.13.

28) 이 관점은 단국대학교 대학원의 윤지경 박사가 제시한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我从北京到上海坐火车去。我从七点到九点在学校。我从七点到八点吃早饭。 등 다양한 어순으로 표현할 수 있다.

《21》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하면서 장거리 시외버스를 타고 시카고를 지나 뉴욕에 도착하는 과정은 동작이나 행위 또는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표현한 것이므로 당연히 ‘시간순서원칙’에 부합한 표현이다. 그러나 같은 의미를 (10)처럼 어순을 달리하여 표현할 수도 있다. 즉, (10)은 이 말을 표현하는 화자의 머릿속에서의 ‘의식의 흐름’이 《21》과 다를 뿐 그 기본적인 의미는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이처럼 ‘시간순서원칙’은 객관현상 또는 객관세계를 두뇌에서 그대로 반영하여 표현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긴 하지만 서론에서 말했듯이 이 객관현상이나 객관세계를 재가공하여 근사하게 반영하여 표현한 두뇌세계, 즉 ‘의식류’인 경우에는 부합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태에 대한 표현은 실제 현상에 대한 여실(如實)한 반영이든 그렇지 못한 반영이든 모두 ‘시간순서원칙’의 상위 범주인 ‘의식류’로 아우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James H-Y. Tai는 《29》와 《30》 등과 같은 예를 제시하면서 ‘시간순서원칙’은 방식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부사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 동사 앞에 위치하는 부사는 왕왕 특정한 사건을 묘사하고 동사 뒤에 위치하는 부사는 일반적인 진술을 사용한다고 하였다.²⁹⁾

- 《29》 a. 他很快地跑了。 b. *他跑了地很快。 He ran away very quickly.
(그는 아주 재빨리 도망갔다.)
- 《30》 a. 他跑得很快。 b. *他很快得跑。 He runs fast.(그는 매우 빠르게 달린다.)
- (11) 【奔驰】 [bēnchí] 𨇳 (车、马等) 很快地跑。【飞驰】 [fēichí] 𨇳 (车马) 很快地跑。(매우 빨리 달린다.)
- (12) 昭华, 一转身, 很快地跑了过来。³⁰⁾ (매우 빨리 달려왔다.)
- (13) 【逸尘断鞅】谓马奔跑时扬起尘土, 挣断马鞅。形容马跑得很快。 매우 빠르게 달린다.

29) James H-Y. Tai, "Temporal sequence and Chinese word order"[John Haiman, 『Iconicity in Syntax』(Typological Studies in Language 6),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85], p.54. 戴浩一著, 黄河译, 「时间顺序和汉语的语序」, 『国外语言学』, 1988年第1期, p.14.

30) 就在对面, 绕过去太远了, 咱们快点儿跑过去。

(14) 他跑得很快。³¹⁾ (그는 매우 빠르게 달린다.)

그런데 James H-Y. Tai가 제시한 (29)와 (30)은 방식이나 도구의 부사와 관련한 예문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문형의 구조적인 모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1)과 (12)는 ‘快’로 구성된 형용사구인 ‘很快’와 구조조사 ‘地’가 결합되어 부사어 역할을 하면서 뒤의 술어 ‘跑’를 수식하고 있는 문장이다. (13)과 (14)는 ‘快’로 구성된 형용사구인 ‘很快’와 구조조사 ‘得’와 결합되어 보어 역할을 하면서 앞의 술어 ‘跑’의 의미를 보충하고 있는 문장이다. 의미상으로 볼 때 (11)과 (12)는 ‘快’가 ‘(속도가) 빠르다’ 또는 ‘얼른, 재빨리’의 뜻을 가지면서 ‘跑’(뛰다)의 정의역으로서 수렴의 기능을 하고 있다. (13)과 (14)는 ‘快’가 ‘(속도가) 빠르다’의 뜻을 가지면서 ‘跑’(뛰다)의 치역으로서 발산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13)과 (14)는 구조적으로 ‘(속도가) 빠르다’의 의미만 올 수 있고 ‘얼른, 재빨리’의 의미는 올 수 없다. 이것은 형식적인 통사구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구조 및 객관현상과도 연계되어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15) (a) 我想大家也该知道一点, 这里我就不**多**说了。 (b) 【言多必失】
 话**说**多了必然会出现失误。(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이므로 여기서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있기 마련이다.)
 (16) (a) 我房子**好**多, 车子也**好**多。 (b) 现在我心情**好**多了。 (c) 天天这样**好**多!
 [(a) 나는 방도 아주 많고 차도 아주 많다. (b) 지금 난 기분이 많이 좋아졌다. (c) 매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15-a)는 먼저 선제적으로 ‘多’(많다)라는 조건을 걸어 정의역으로 그 의미와 구조적 역할을 각각 ‘많다’와 ‘부사어’로 수렴한 후 ‘说’(말하다)라는 치역으로 사상하면서 그 의미와 구조적 역할을 각각 ‘말하다’와 ‘술어’로 발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5-b)는 ‘说’(말하다)라는 정의역으로 그 의미와 구조적 역할을 각각 ‘말하다’와 ‘술어’로 수렴한 후 ‘多’(많다)라는 치역으로 사상하는

31) 这车况真好, 自动挡助力转向, 还有空调, 开着真爽, **跑快点儿**也没问题。有人追我! 让马**跑快一点**! 我非逃不可, 被捉回去就没命了!

과정에서 그 의미와 구조적 역할을 각각 ‘많다’와 ‘보어’로 발산하고 있다. 이런 두 표현의 생성 및 도출 과정이 모두 중국어 모어 화자의 ‘의식류 원칙’에 부합하면서 지렛대의 원리로 수렴하고 발산하고 있으므로 합법적인 문장이 되는 것이다.

(16)을 먼저 생성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多’와 ‘好’라는 두 구성소로 생성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순열(順列, permutation)의 결과는 ‘好多’와 ‘多好’ 2개이다. 그렇다면 ‘好多’와 ‘多好’ 구조에 있는 ‘多’와 ‘好’의 특징과 역할은 무엇일까? (16-a)의 ‘好多’에서 ‘好’를 조건을 건 정의역으로 삼아 그 의미와 역할을 각각 ‘매우 또는 아주’와 ‘부사어’로 수렴한 후 ‘多’라는 치역으로 사상하면서 그 의미와 역할을 각각 ‘많다’와 ‘술어’로 발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16-b)의 ‘多好’에서는 ‘好’를 정의역으로 삼아 그 의미와 역할을 각각 ‘좋다’와 ‘술어’로 수렴한 후 ‘多’라는 치역으로 사상하면서 그 의미와 역할을 각각 ‘많다’와 ‘보어’로 발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6-c)의 ‘多好’에서는 ‘多’를 정의역으로 삼아 그 의미와 역할을 각각 ‘얼마나’와 ‘부사어’로 수렴한 후 ‘好’라는 치역으로 사상하면서 그 의미와 역할을 각각 ‘좋다’와 ‘술어’로 발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시간순서원칙’에 따른 부사어의 위치 문제는 단순히 부사어와 술어의 위치 관계만 따질 것이 아니라 술어를 중심으로 앞뒤의 부사어와 보어를 같이 다루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의미나 의미자질 및 기능 또는 역할을 같이 살피면서 ‘의식류의 원칙’에 따라 지렛대의 원리로 수렴되고 발산되면서 정의역에서 치역으로 사상되는 과정으로 살피는 것이 보다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3) 시간범위원칙과 시간 표현의 의식류 원칙

James H-Y. Tai는 ‘시간순서원칙’에 따라 시간의 지속을 표시하는 부사어는 (39)처럼 술어 뒤에 온다고 하면서도 (53)처럼 ‘동안’의 의미가 술어 앞에 오는 경우에 대하여는 ‘시간범위원칙’이라는 것을 추가하여 ‘시간순서원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³²⁾ 그런데 (39)과 (53)의 ‘三天’은 모두 시간의 길이

인 ‘동안’의 뜻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원칙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한다.

- (39) a. 他病了三天了。 b. *他三天病了。
 c. *三天他病了。(그는 3일간 아팠다.)
- (43) a. 他生病生了三天了。 b. *他生病三天了。(그는 3일간 아팠다.)
- (53) a. 他三天来都病着。 b. 三天来他都病着。³²⁾ c. *他都病着三天来。
 (그는 3일간 아팠다.)
- (17) (a) 他生病已经四天多了, 说了三天胡话, 现在清醒了过来。 (b) 他住院三天了。 [(a) 그가 아픈 지 벌써 4일이 넘었는데 3일 동안 이상한 말만 하더니 이제서야 깨어났다. (b) 그가 입원한 지 3일 되었다.]

현대 중국어에서 시간 개념은 기본적으로 ‘시점’, ‘동안(시간의 길이)’, ‘시간의 범위’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1초이든, 10분이든, 100년(세기)이든 그것이 시점을 가리킬 수도 있고 동안을 가리킬 수도 있다. 물론 ‘三月’과 ‘三个月’처럼 표현 형식에서 구분되기도 하지만 위의 ‘三天’처럼 ‘시간의 길이’로 보아야 할지 ‘시간의 범위’로 보아야 할지 형식 그 자체로는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리고 ‘시간순서원칙’과 ‘시간범위원칙’이라는 2개를 설정할 것이 아니라 ((39)-(b), (c))와 ((53)-(c))는 비문이고 ((53)-(a), (b))는 옳은 문장임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이론이나 원칙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장호득은 시간 개념을 ‘집합’과 ‘원소’로 범주화하여 ‘시점’과 ‘시간의 범위’를 봉쇄성 특징을 가진 ‘집합’으로 연결시키고, ‘동안(기간, 시간의 길이)’은 개방성을 가진 ‘원소’로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³⁴⁾

32) “In Chinese, duration adverbs can only occur after the verb.” “在汉语中, 表示时间持续的状态只能出现在动词之后。” James H-Y. Tai, “Temporal sequence and Chinese word order” [John Haiman, 『Iconicity in Syntax』(Typological Studies in Language 6),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85], pp.58-61. 戴浩一著, 黄河译, 「时间顺序和汉语的语序」, 『国外语言学』, 1988年第1期, pp.15-17.

33) ‘来’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뒤의 예문처럼 같은 용법으로 쓰이고 있다. “一连三天都是这样。” “他们三天都没有吃到一顿饱饭。” cf. 三年来; 前三年; 三年前

‘시간순서원칙’에 ‘시간범위원칙’을 추가할 필요가 없이 ‘의식류 원칙’으로 지렛대 원리에 따라 수렴되어 발산하는 과정 또는 함수 관계의 관점에서 정의역에서 치역으로 사상되는 과정으로 규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³⁶⁾

3. 결론

언어는 객관세계를 두뇌에서 재가공한 후 ‘근사(近似)’한 방법과 ‘소리’라는 수단으로 반영하여 도출한 ‘두뇌의 우주세계’, 즉 ‘의식류(意識流)’이다.

본고는 1985년에 James H-Y. Tai가 제시한 ‘시간순서원칙(PTS, Principle of Temporal sequence)’에 적용되기 어려운 예를 분석하여 다른 각도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여 그의 이론을 더 일반화하고자 하였다. 그 관점은 바로 ‘중국어의 어순은 중국어 모어 사용자의 의식류(the stream of consciousness)의 수렴(收斂, convergence)과 발산(發散, divergence)’에 의해 생성되고 도출된다는 것이다.

이 ‘의식류의 원칙’은 지렛대의 원리(the principle of the lever and fulcrum, 杠杆原理)로 작동되며, 술어 또는 휴지(pause) 등 표지를 지렛목(fulcrum, 支点)으로 삼아 수렴과 발산의 형식으로 도출된다고 구명(究明)하였다. 그리고 이 원리는 또 함수 관계로도 설명할 수 있다. 어순, 논리 등을 표현하는 모듈 내에서의 의식류 함수식은 $f(x)=y$ 인데, 그 함수(函數, function)는 정의역(定義域, domain)에서 치역(值域, range)으로 사상(寫像, mapping)되고 있음을 구명하였다.

36) 그 외에 James H-Y. Tai가 제시한 “(49) 美国, 伊利诺伊州, 卡本代尔市, 大学路, 800号 (50) 1980年, 12月, 22日, 上午, 10点 (55) a. *他把黑板上的字写了。 b. 他写字写在黑板上。 ??他写了黑板上的字。 (56) a. 他把黑板上的字擦了。 b. *他擦字擦在黑板上。” 등등의 예문도 이런 ‘의식류의 수렴과 발산’, ‘정의역과 치역의 함수 관계’로 규명할 수 있다.

參考文獻

<단행본>

-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编, 『现代汉语词典』(第7版), 北京: 商务印书馆, 2016.
- James, William,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New York, NY: Henry Holt, 1890.

<논문>

- 이선희, 「현대중국어의 주관량(主觀量) 대소전도현상과 어순변화」, 『중국언어연구』, 제17집, 한국중국어학회, 2003.12., pp.225-250.
- 장호득, 「현대중국어 시간 개념의 범주화와 통사적 도출 연구」, 『중국문학연구』, 제50집, 한국중문학회, 2013.02., pp.169-189.
- 장호득, 「현대 중국어 동사 ‘自+X’, ‘X+自’의 형태·통사적 생성과 도출」, 『중국학』, 제74집, 대한중국학회, 2021.03., pp.173-194.
- 조은정, 「고대중국어 어순 연구 현황」, 『중국문학연구』, 제59집, 한국중문학회, 2015.05., pp.169-190.
- 戴浩一著, 黄河译, 「时间顺序和汉语的语序」, 『国外语言学』, 1988年第1期, pp.10-20.
- 戴浩一, 「再論時間順序原則」(催希亮主編, 『認知語法與對外漢語教學論文集』,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11.), pp.66-85.
- 杨德峰, 「“时间顺序原则”与“动词+复合趋向动词”带宾语形成的句式」, 2005年第3期, 『世界汉语教学』, pp.56-65.
- 刘晓丽&于善志, 「论汉语的空间性——从戴浩一“时间顺序和汉语的语序”谈起」, 2011年第4期, 『语言理论研究』, pp.14-16.
- James H-Y. Tai, “Temporal sequence and Chinese word order” [John Haiman, 『Iconicity in Syntax』(Typological Studies in Language 6),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85], pp.49-72.

George A. Miller, “The Magical Number Seven, Plus or Minus Two: Some Limits on Our Capacity for Processing Information”, 『The Psychological Review』, vol. 63, 1956., pp.81-97.

Li, Charles N., and Sandra A. Thompson, “Serial verb constructions in Mandarin Chinese”, 『Papers from the Comparative Syntax Festival』, Chicago Linguistic Society, 1973., 96-103.

<기타 자료>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3.04.15.]

http://ccl.pku.edu.cn:8080/ccl_corpus/(北京大学CCL语料库) [2023.04.15.]

Abstract

The word order of modern Mandarin Chinese and the stream of consciousness,
and its convergence and divergence

Chang, Ho Deug

Language is the 'time-space world of the brain' or 'the stream of consciousness', derived by re-working the objective world in the brain and reflecting it as a method of 'adjacency and similarity' and a means of 'sound'.

This paper was analyzed by presenting examples that are difficult to apply to the 'Principle of Temporal sequence' of James H-Y. Tai(1985). This paper aimed to generalize his theory further by presenting a new perspective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The perspective is that the word order of Chinese is generated and derived by the convergence and divergence of the stream of consciousness of the native Chinese speaker.

It was discovered that this 'principle of consciousness' operates as the principle of the lever and fulcrum, and is derived in the form of convergence and divergence using the predicate or marks(pause etc.) as a fulcrum.

And this principle can also be explained as a function of mathematics. The function formula for the stream of consciousness within a module that displays relationships such as word order and logic is $f(x)=y$. And it was revealed that the function is being mapped from domain to range.

Key words : Modern Mandarin Chinese, Word Order, the stream of consciousness, convergence, divergence, PTS

투고일: 2024. 1. 10. / 심사일: 2024. 1. 15. ~ 2024. 2. 15. / 게재확정일: 2024. 2. 20.